아이언맨 된 천둥벌거숭이

(전도서 9:1~18)

7.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10.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이언맨 된 천둥벌거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이언맨 된 천둥벌거숭이'
천둥벌거숭이는 철없이 앞뒤 가림 없이 마구 나대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래는 무서운 줄 모르고 천둥이 치는데 벌거벗고 이리 저리 함부로 뛰어 다니는 어린 철부지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세상사람 전체를 천둥벌거숭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 11~18절에서도 결국 인생전체를 돌아보면서 철없이 설쳐대고 허탕만 치는 삶을 살고 있음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입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해도 허탕 치지 않는 아이언맨의 슈트와 같은 옷 한 벌을 제시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흰옷'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슈트만 입으면 천하무적의 히어로가 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흰옷도 이와 같습니다. 이 흰옷을 입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속에 엄연히 포함되어서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온 내용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기뻐하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신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상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흰옷은 순결함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순결과 기쁨이 묶여있다는 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쁨의 문제에서 불결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에 향을 바르는 것도 같은 맥락을 가진 비유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나 각종 절기에 머리에 향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 역시 축제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기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함은 기쁨의 이유와 직결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고 기쁘면 순결한 상태가 됩니다. 본래 마음은 하나님만이 들어오시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마음의 담음으로써 불결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결은 곧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정해진 바대로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채워지고 나면 만족과 기쁨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순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마음에서 돈이 기쁨을 주리라 믿어서 돈을 붙잡을 때에 마음은 불결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밥상위에 신발을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밥을 퍼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장실 바닥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에 불결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할 자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돈을 담아서 기뻐하고 만족하려 하였기에 더러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으로 기뻐하느냐에 따라 인격의 깨끗함과 더러움이 결정됩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기쁨이 발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기가 뿜어져 나오듯이 기쁨이 마음으로부터 뿜어져 나옵니다. 이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기쁨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세상을 향해 발산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만나는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만날 때에 기쁨을 발산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흰옷은 기쁨과 순결, 향유는 기쁨의 발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은 마음의 옷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에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아이언맨이 슈트를 입듯이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으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순결함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곧 빛이십니다. 즉 변화산 사건에서의 광채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광채 나는 흰옷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입어야 하는 흰옷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면 안에서 바깥으로 하나님의 빛이 발산됩니다. 이것이 기쁨의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아이언맨은 겉에 슈트를 걸침으로써 천하무적이 되지만, 우리는 마음에 모셔 들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발산함으로써 천하무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흰옷과 머리에 바른 향유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일단 옷을 입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이 수많은 임무들을 해결하기에 앞서 아이언맨 슈트를 입어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앞서 기쁨의 흰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기전에 자녀를 대하기전에 기쁨의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미션을 수행해야 하고 아빠엄마의 미션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미션을 수행하려면 아이언맨이 슈트를 입고 임무를 수행하듯이, 우리는 기쁨의 흰옷을 입고 향유를 바르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발산하는 상태가 되어서 배우자도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에게서 기쁨을 발굴해내려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옷을 입지 않고 삶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천둥벌거숭이의 삶입니다. 벌거숭이로 문밖을 나설 수 있습니까? 버스와 전철을 타고 직장에 갈 수 있습니까?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순결이라는 말이 뜻하듯이 합당한 것으로 마음이 채워져야만 기쁨과 만족은 생겨납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순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천둥벌거숭이로 살아갑니다. 본래는 기쁨의 옷을 입고 마주해야 될 세상에 벌거벗은 채로 나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언맨은 슈트를 걸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마음에서 나오는 광채로 인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기쁨입니다. 육체로 만나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언맨의 슈트가 엄청난 힘을 주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들을 수행하게 하듯이, 기쁨의 흰옷은 세상의 넘어뜨림과 고꾸라뜨림을 이겨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삶의 처지를 기쁨으로 뚫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 자체를 기쁨으로 바꾸어 나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흰옷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둥벌거숭이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쁨의 흰옷을 입지 않고 벌거숭이로 나가서 살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 받은 자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수준에서의 깨끗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지혜자'도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선생이라 불릴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일지라도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천둥벌거숭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에 기쁨의 흰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함이 없으니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탕이고 철없는 천둥벌거숭이의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미래를 기다려도 바라는 기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측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내게 나타날 때에 그것은 결코 내가 원하거나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미래를 아무리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비전이나 꿈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탕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채우려는 천둥벌거숭이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기쁨을 기대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라집니다. 날마다 배우자를 향해 구시렁대는 사람은 철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말이지만 실은 철없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살맛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도 철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천둥벌거숭이로 날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녀만을 닦달합니다. 천둥벌거숭이는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대출을 받고 난리를 쳐도 다 허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곧 더러움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악은 불결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바로 불결하고 악한 마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걱정과 근심이 다 생겨납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기쁨이시라면 이 세상의 일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걱정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쁨과 만족은 세상의 일이 잘되고 안 됨에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기에 그것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이어집니다. 돈 출세 취직 승진 결혼 일류대학입학 등의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악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왕 앞에 선 것으로 비유하며 세상의 가치를 좇는 것을 '미친 마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계획과 소원을 떠들며 왕에게 지시하려고 하는 자는 미친 자입니다. 왕 앞에서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패싱하고는 턱도 없는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불결한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미친 짓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돈으로 만족하고 싶어서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면 미친 마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싶어서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미친 마음이고 광인(狂人)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세상의 가치로 기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흰옷과 향유는 순결과 기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은 솔로몬이 보기에 미친 짓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삶의 우여곡절을 지나 말년을 맞이한 솔로몬이 볼 때에 재산을 많이 모아서 기쁘겠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에 불과하고 천둥벌거숭이의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낙태아가 더 낫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낫고, 살다가 죽은

자보다 아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낙태아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 산 자와 죽은 자와 낙태아 중에서 낙태아가 최고라고 했던 이유는 햇빛 아래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순결의 차원에서는 차라리 낙태아처럼 세상의 빛 자체를 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었습니다. 드라큘라를 십자가를 쫓아내듯이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녀든 돈이든 건강이든 세상의 가치를 쫓아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기쁨이 발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흰옷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 이유가 소망 때문이라'는 것은 살아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받아들일 바에야 낙태아처럼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가졌다면 산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언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몸에 슈트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셔 들임으로써 빛으로 옷을 입고 마음으로 기쁨을 발산합니다. 육체가 없어지면 이것이 부활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발산하시는 빛이야말로 영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하심을 유지하면서 아버지를 받아들이자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 바깥으로 발산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황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러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마음에는 세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기쁨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나의 육체로부터 시작하여 육체로 접하는 모든 대상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죽음을 통해서 마음을 보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마음은 아버지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일시에 채워주실 수도 있고 점증적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이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결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흰옷을 입고 나면 세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슈트를 입은 아이언맨 이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파쇄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인격 속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둥벌거숭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이언맨 슈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의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이것저것 많은 걱정이 있지만 벌거숭이로 나가서 손대지 않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걱정거리들에 대해 죽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이 세상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은 아버지만의 자리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빛을 발하시므로 내 마음이 흰옷을 입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세상으로 나아가 아이언맨 같은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